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제대로
밥값하는
정치!

노원이 키운 우리사람
2고용진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고 불평등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통일대박 구호는 사라지고,

남북대결과 전쟁 분위기만 고조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역사마저 후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어르신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뵘뵘 뭘해?

혐오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그래도 정치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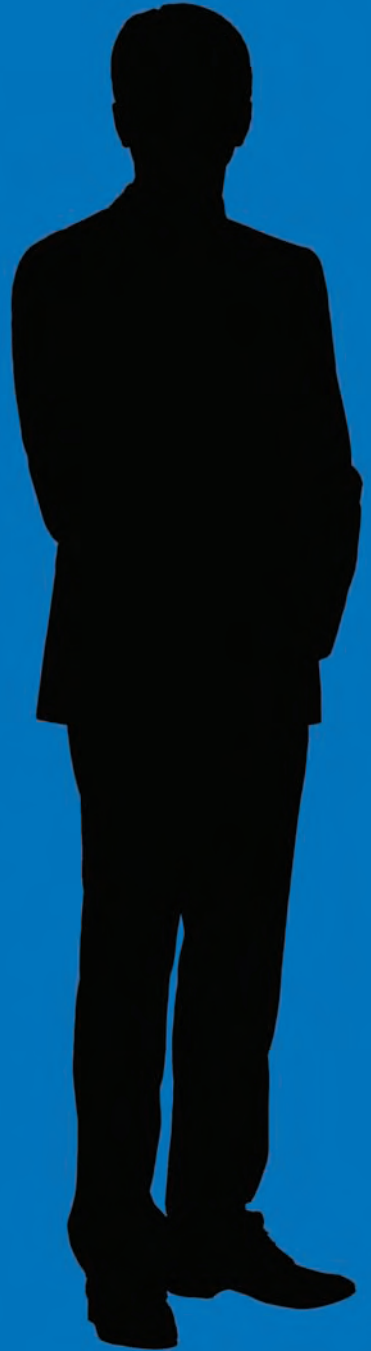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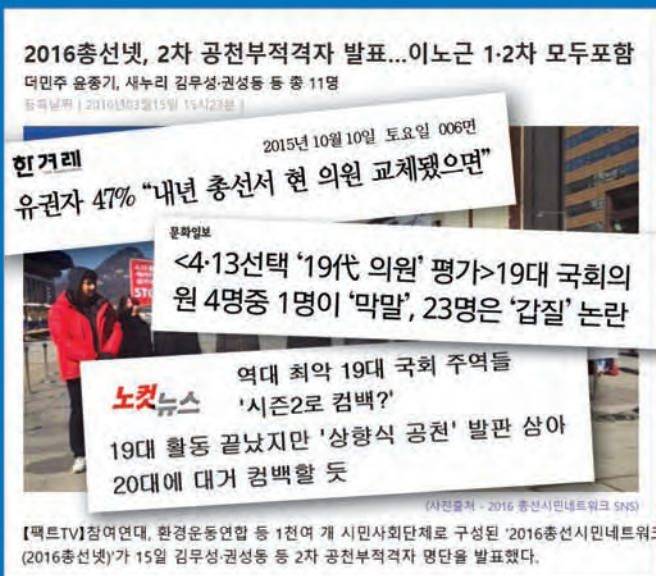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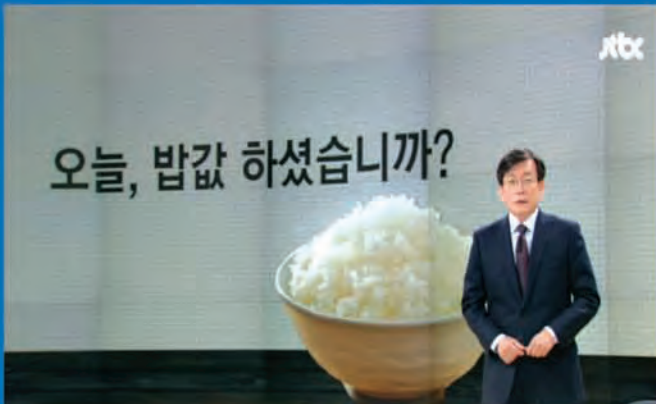
우리 삶을 바꾸는 한 표, 고용진을 향해 던져 주십시오!



제 밥그릇 챙기는 정치

“국민의 다섯배가 넘는 연봉,
연봉대비 생산성 꼴찌 수준인 국회의원,
그들은 늘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선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2015. 10. 29. jbc 뉴스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 中)





국민 밥그릇 챙기는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밥상은 소박합니다.

막말과 싸움 없는 정치,

누구나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흙수저, 금수저 구분 없이 태어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소박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잇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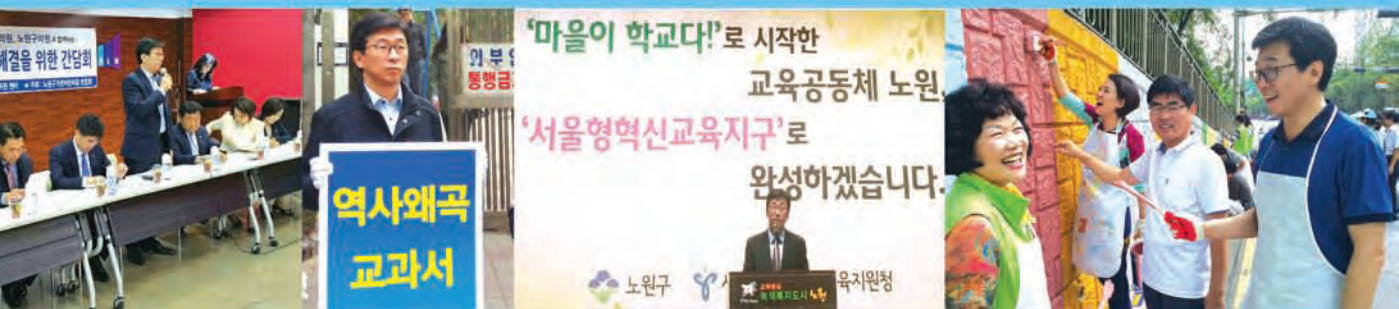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던 정치인 손학규.
그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밥값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희망을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며, 응당 밥값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도전과 시련, 성공과 좌절을 겪으며
노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노원,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더더

제대로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

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9% 국민의 희생 위에 1% 특권층의 이익만이 대변되는 '그들만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겠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인데도, 집 한 채, 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 폭탄을 맞는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집중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여 OECD 28개국 중 꼴지라는 불명예를 씻어 내겠습니다.



더

희망찬 미래, 청년을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취업
활동 지원금 지원, 비정규직 일자리를 질 좋은 일
자리로 전환, 사병월급을 30만원으로 인상, 셰어
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등 우리 시대의 청
년들에게 희망을 보태겠습니다.



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에 20만원으
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막말로 신뢰를 잃은 19대 국회.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말하는 것의 10배
를 들겠습니다. 특정 정파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싸우지 않으며, 품위를 지켜 노원 주민들의 자긍
심을 높이겠습니다.

노원이 키운 사람,
노원을 키울 사람,
고용진의 약속!



새롭게 깨어나는

월계

동북선 경전철 개발사업! 속도를 내겠습니다

상계역~하계역~월계역~고려대역~제기역~왕십리로 이어지는 경전철 사업이 조기 착공되면, 월계동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협력해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운대역 개발문제!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민자개발 방식으로는 광운대역사 개발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방식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분진 피해 호소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광운대역 시멘트 사일로 물류기지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시멘트 수송용기를 컨테이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춘선을 청춘선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불씨가 된 공릉동 행복주택.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진은 행복주택 건립계획 취소를 최우선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차선책으로 제시해 경춘선 폐선부지 전면 공원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청춘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명품 공원으로 변화시켜 서울 동북권의 명물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한전연수원 부지에 나노·IT·에너지· 바이오·메디컬 밸리를! 노원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국전력의 연수원 부지에 원자력병원, 서울과기대, 한전의 협력을 이끌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학연계형 암치료 전문센터 및 연구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공릉

- 광운대역-의정부 연결 KTX(GTX)사업 추진
-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유치
- 문화·교육·스포츠 인프라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태릉입구역(구 북부지원) 상권 활성화 추진

**월계동·공릉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걱정, 자식 교육 걱정, 전세 걱정, 노후 불안...
 오늘이 고달프고 내일이 걱정인 서민의 삶.
 하루를 마친 서민들의 저녁이 따뜻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밥값 제대로 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1964년생(만51세)
 종암초등학교 졸업
 대광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국회부의장 비서관
 서울시의회 의원(월계·공릉) 2선
 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2002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환경공단 기획관리 이사
 손학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월계·공릉)
 지역위원회 위원장



2 노원을 키울 우리사람 고용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95 성북빌딩 404호
 02-941-0413



yongjin.koh



yongjin_koh



kohyj64



yongjin.koh